



이상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춘기

오늘의 고민이
내일은 길이 될 거야

탁경은 에세이

독 후 활동지

이름
학교 | 학년
지도교사

특별한서재

청소년의 마음을 섬세히 어루만져 온
소설가 탁경은이 써 내려간
사춘기 마음 사용 설명서



앞으로도 위태롭고 힘겨운 순간은 종종 찾아올 것이다. 그런 순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. 모두 비슷할 것이다. 저마다 힘겨운 순간을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. 버티다 보니 어른이 되어 버렸고, 어른이기에 시도 때도 없이 울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. 부지런히 어른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이미 어른이 되어 버린 청춘들에게 나의 보물을 내민다.

-본문에서

“세상에는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, 나만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다.”

꼭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니더라도,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‘나만의 방법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떠올려 보세요.

작가는 ‘재능’보다 ‘지속적인 노력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스스로 ‘재능이 없다’고 느껴 본 적이 있나요?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,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.

책 속에 실패와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. “실패해도 괜찮다,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는 말을 읽고, 지금까지 시도해 본 일 중 가장 용기를 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그 일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.

“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.”, “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.”

책 속에서 작가는 자존감을 키우는 법, 혼자서도 괜찮은 법에 대해 말해 줍니다. 자존감이 낮아졌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.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힘이 되었을까요? 지금의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.

“책은 위험한 물건이다.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.”라고 작가는 말했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만들어 준 문장이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고,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생각해 봅시다.

‘주체적인 삶’이란,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“내가 진짜 원해서 선택하는 삶”이라고 책은 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있나요? 그 선택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,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돌아봅시다.
